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은 건강보험이 30년간의 첫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는 첫해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 주제는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방식은 2001년도에 도입되었으나 단 한번 2006년도 수가계약만이 협상을 통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 때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부대결의 되었고 2008년 수가를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의과위원과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7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의 계약이 결렬되는 등 제도 시행 첫해부터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었고, 제도 도입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책과 쟁점'에서는 유형별 계약방식을 연구한 학자나 수가계약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를 함께 초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필에는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독자들께는 '유형별 계약제도'의 내용과 이 제도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HIRA연구'에는 '주요국의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그 시사점'을 실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질평가와 인센티브 지불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전산시스템이 양질의 일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기술에 기반한 환자 중심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향'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동향을 실었습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2월 4일 개최한 심평포럼의 주제인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였고,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실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기간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개설기간이 짧을수록 내원일당 평균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 형 선